

「石泉 申緯의 『尙書古注』 연구-경학자료 DB 구축을 위한 시론-」 에 대한 토론문

지영원

이동학 선생님의 발표문은 석천 신작의 『상서고주』를 대상데이터로 삼아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지식 체계를 데이터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습니다. 이전 연구¹⁾로 미루어볼 때, 아마 변은미 선생님과 각각 『상서고훈』, 『상서고주』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합쳐서 이런 방식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듯합니다. 이 분야 연구에서 협업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시도라 생각됩니다. 또 작성된 XML 문서를 보면 경서 주석서의 주요한 요소들이 대체적으로 반영되어 있고, 이 요소들은 대개 큰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, 장기적인 연구의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. 다만, 몇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1. 연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. 함께 제출하신 XML 데이터를 보면, 단순히 <person>, <book> 등을 마크업하는 범주에서 벗어나, id와 속성을 구체적으로 태깅하고 있습니다. 아마 파싱-> 넘버링-> 재결합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리라 생각되며, 보여주신 Neo4j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시맨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. 다만, 이 작업이 연구자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? 앞선 연구가 2024년에 발표되었으니 최소 2년 이상의 공력이 들어갔으리라 짐작되는데, 이제 권1의 <요전>에 대한 논리 구조가 마련되었을 뿐입니다. 흐름상 다음 연구는 『상서고주』 전체에 대한 XML, 파싱, 지식그래프 작업과 데이터 분석이 될 것 같은데, 차기작이 발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, 완성이 요원하다면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상실됩니다. 혹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, 그간의 작업을 통해 연구자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첩경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

2. 본문 2장의 온톨로지 디자인 부분입니다. 기 논문에서 이미 XML 구조를 설명하고, 주요 요소와 속성을 논한 바 있으므로, 이 연구에서는 속고를 통해 재정립된 확장된 논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일단 전체적인 온톨로지 디자인 도상이 필요해 보입니다. 내용을 보면, 시화에서 주요한 요소가 <비평>이나 <평어> 등인 것처럼, 경서 주석서 텍스트는 그 특성상 핵심적인 내용이 대개 <인용>, <견해>, <언급>, <구절>에 집중되어 있으리라 예측됩니다. 그에 부합하듯 언급된 항목들의 속성이 이전에 비해 자세하게 바뀌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실례를 드는 방식을 통해 속성을 확장한 논리와 그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독자가 발전된 디자인에 대해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나아가 이미 비슷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, 『상서고주』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를 더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데이터 작성을 통해 경학자료 시맨틱 데이터 구축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리라 인식되는 요소들을 판별하고 통합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사실 기존 논문에서 어느 정도 언급된 부분이지만, 더 선명하게 드러내어 예각화하여야 할 이번 발표에서는 관련 내용

1) 변은미·이동학·유인태, 『『尙書古訓』과 『尙書古注』 연계 시맨틱 데이터 프로세싱 1 : XML 데이터 설계 및 편찬』, 『한문학논집』 69, 근역한문학회, 2024.

이 빠져 있습니다. 추후 보충하시리라 생각하며, 견해를 여쭙습니다.

3. 본문 3장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. 미리 제공해 주셔서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데이터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고, 쿼리를 통한 질의응답도 당장의 결과보다는 미래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. 다만, 『상서고주』「요전」의 내용만으로는 그다지 쿼리를 통한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에 이를 지금의 체제에서 학술논문의 메인인 한 장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기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나 데이터 전처리 과정 소개, 『상서고주』가 지닌 특수성과 이를 전체 구조에 융화하는 과정 등 후속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만한 내용을 본문의 한 장으로 추가하고,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다룬 장은 전체적인 조감도와,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고 미래 효용성이 드러나는 쿼리 몇 가지와 그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.